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8~6/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지안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눈부신오늘	법상스님	마음의숲
2	영원한자유의길(재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7	남을위해기도합시다	퇴옹성철	장경각
3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8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꿈을깨면 내가부처	서암스님	정토	9	좋은사람으로사는법	틱낫한	김영사
5	산사에홀로앉아	일운스님	모과나무	10	심심한생각채우기(엽서컬러링북)	아름다운인연	누똥바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인도불교의 철학정신 필요한 한국불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인식론 연구
도사키 히로마사 지음
박인성 옮김
길 펴냄
4만 5천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의 나라이다. 그러나 이 말이 올바르게 이해되려면 '중국의'이라는 한정어가 붙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중국의 대승불교의 나라이다. 선(禪), 화엄(華嚴), 천태(天台) 등 중국불교의 나라이다. 중국인들이 〈반야경〉(般若經),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등 인도의 대승경전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새롭게 창안한 불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불교가 비록 대승불교이기는 하지만 인도불교사에 등장하는 대승불교와 문제의식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인도불교사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이전에 있었던 아비달마불교(阿毗達磨佛敎) 여러 학파들 사이의 논쟁과 대승불교 여러 학파들 사이의 논쟁 등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7세기에 인명(因明)불교의 다르마끼르띠가 등장하고 이를 잇는 흐름이 12세기까지 계속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불교는 인도불교의 논쟁에 보이는 철학정신이 인도불교만큼 치열하거나 세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불교는 애초부터 철학적 사유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철학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중국불교가 태어나는 데 그 소의경전(所依經典)이 되었던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금강반야경〉 등 대승불교의 경전이 우리의 경전이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경전들에 등장하는 붓다는 역사상 실존했던 붓다가 아니다. 붓다의 권위를 빌기 위해 이 경전들 속에 붓다가 나오고 있을 뿐이다.

역사상 실존했던 붓다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니까야'가 완역되어 우리의 경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오늘날, 우리 불교도 이제 이에 걸맞게 인도불교의 철학정신에 입각해서 사유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인명불교의 논서들은 불교를 불교답게 철학하기 가장 좋은 텍스트이다.

도사키 히로마사의 〈불교인식론 연구〉는 다르마끼르띠(법칭:法稱=600~660년경)의 〈쁘라마나바룻띠까〉 〈현량장〉을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양(量)은 인식의 척도를 의미하는데, 현량(現量)과 비량(比量)으로 나뉜다. 현량은 지각, 비량은 추리 또는 논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다르마끼르띠의 지각이론을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논리학과 불교인식론으로 알려져 있는 인명불교는 선대의 디그나가의 영향

인도불교, 학파 논쟁 통해 성장
인명불교 논서 철학에 좋은 텍스트
유식불교의 '유식무경' 사상 반영

을 받으며 다르마끼르띠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7세기 이후의 인도 철학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다르마끼르띠의 이 논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다르마끼르띠의 이 논서와 이후 12세기까지 다르마끼르띠를 계승하는 불교논사(佛敎論師)들의 논서는 모두 산스끄리뜨본 또는 티베트어본으로 내려온다. 오늘날의 인식론과 논리학에 익숙한 우리들이 접근하기 좋은, 기존의 문헌에 보이는 용어들과 한역어(漢譯語)와는 다른 용어들로 인명의 사상이 전개된다.

인명불교는 유식불교 이후의 유식불교라 할 수 있다. 유식불교의 유식무경(唯識無境) 사상을 인식론과 논리학에 입각해서 자세히 펴고 있는 불교이다.

유식무경은 모든 것은 마음에 나타난 것일 뿐 마음 바깥에 대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구성한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뜻의 말이다.

이러한 유식무경의 사상을 다르마끼르띠는 부파불교(部派佛敎)의 한 학파인 경량부(經量部)를 따라 마음 바깥에 대상이 존재한다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유식논사답게 이 역시 대상이 마음에 나타난 대상이라는 유식학의 사상을 따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다르마끼르띠의 게송을 번역해가며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유식 이후의 유식이라 할 수 있는 다르마끼르띠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르마끼르띠의 논서를 직접 번역하며 해설한 책은 이것이 처음이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느라 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히 인명불교 연구의 금자탑을 이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마끼르띠의 〈쁘라마나바룻띠까〉는 위자비량, 양성취, 현량, 위타비량으로 구성됐다. 〈쁘라마나바룻띠까〉에서 다르마끼르띠는 디그나가의 〈쁘라마나사뭇짜야(집량론集量論)〉을 주석하면서 다른 학파와의 대론을 설정하는 등 보다 진전된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 가운데 현량장을 데벤드라붓디, 샤끼야마띠, 쁘라즈냐까라굽따, 까르나까고민, 라비굽따, 마노라타난딘 등 모든 〈쁘라마나바룻띠까〉 주석가들의 주석을 검토하고 참조하며 해설한다.

또한 〈쁘라마나바룻띠까〉가 디그나가의 〈쁘라마나사뭇짜야〉를 주석하면서 해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 논제 앞에 이에 해당하는 〈쁘라마나사뭇짜야〉의 글을 끌어들여 번역하고, 이와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런 방식의 설명은 제 2부의 〈쁘라마나바룻띠까 현량장의 번역 연구〉서 볼 수 있는데, 첫째 양(量)의 수에서부터 시작해, 둘째 현량의 정의, 셋째 현량의 명칭, 넷째 아비달마의 학설과 현량의 정의 현량제분별의 회통, 다섯째 현량의 대상, 여섯째 현량의 종류, 일곱째 사현량(似現量), 여덟째 양과(量果)=양(量), 아홉째 양과(量果)=자증(自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견지된다.

저자 **도사키 히로마사**는?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에서 태어났으며, 규수(九州) 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규수 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역서로 〈大乘佛典 Ⅰ〉에 실린 〈善勇猛般若經〉이 있고, 논문으로는 〈講座: 大乘思想〉 제2권에 실린 〈後期大乘佛教の認識論〉 등이 있다.

선(禪), 내면 중심 잡는 최고의 공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
크리스 프렌티스 지음
김지영 옮김
판미동 펴냄
1만 2천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다양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면의 중심을 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인가〉가 출간됐다. 미국 내에서 평판 높은 약물중독치료센터의 소장이자 역경(易經), 선(禪) 사상 등의 어려운 주제를 일상에 활용하기 쉽게 해석하는 학자 크리스 프렌티스는, 불우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약중독자인 아들을 치유하는 과정서 얻은 깨달음과 행복의 기술을 쉽고 명쾌하게 전한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이다. 그는 이 책에서 특정한 종교나 전통이 아닌,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의 탐구와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선'을 이해하고 접근한다. 여기서 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중심이 되는 상태'이다.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어떤 일을 걱정만 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휩쓸려가기 쉽다. 항상 중심에 머무르며 '맞이할 자세'를 취해야만 어느 방향에서,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거나 현실의 쾌락

"중심에 머물면 모든 위기에 대처 가능"
저자, 깨달음과 행복기술 쉽게 전달
'우리가 바로 우주' 법칙… 불행방지 비결

에 매몰되지 않고, 부박한 현실에서 존재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 나갈 때 느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잡는 무게추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앨런 왓츠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서 무(無)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비유했고, 무의 경지란 '항상 중심에 머물게 하고 항상 여기에 머물도록'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정한 방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하라. 만약 그 일이 다른 방향에서 일어난다면 힘을 모아 다시 자세를 취하려 할 때는 이미 늦었다. 중심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을 관통하는 기본 명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일 중 최상의 것'이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식의 '자기기만'이나 '정신승리'의 말이 아니다. 이는 저자가 삶의 고비에서 깨달은 우주의 '인과법칙'과 맞닿아 있다.

저자는 마약중독자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10년 동안 다양한 의사들과 치료사들을 찾아다녔다. 40여 차례나 중독에서 벗어났다 재발하기를 반복하던 끝에 아들은 중독성 약물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냈고 마침내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약물중독치료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주의 '인과 법칙'에 따라 살펴본다면, 마약에 중독된 시간이 없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치료센터를 설립할 수 없었을 것이며, 결국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최악의 시간은 최상의 시간을 열어 주는 길이었고, 우주는 그들을 위해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전언이다.

저자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개 우리가 갖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섣불리 좌절하여 불행을 자초한다고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우주이자 그 일부이며, 우주는 언제나 자기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오직 좋은 결과만 바란다."는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즉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자신의 현재 삶을 이끌어 주는 길이 되며, 바로 그 길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통과 불행에 휩쓸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이야기 한다. "한번은 직장을 잃고 자신의 신세를 탓하며 술과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술과 코카인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날 무렵, 하루는 자신이 정말 일하고 싶어 했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가 언제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장 함께 일하길 원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는 먼저 그에게 약물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회사는 규범이 까다로워서 마약 복용자는 절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우주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 대신, 직장을 잃었다고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며, 우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탓입니다. 사실 그가 직장을 잃은 것은 실패나 불운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직은 그를 좀 더 나은 일로 나아가게 해 줄 일종의 졸업장이었습니다. 단지 그 자신만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다보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진리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이다. **김주일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⑫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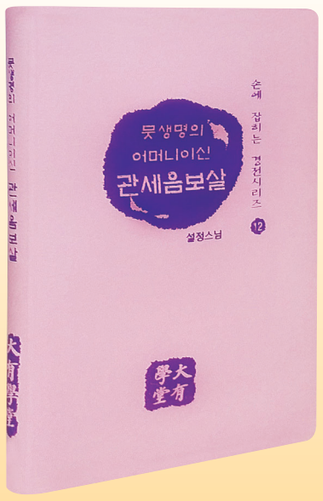
'천수경'과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보살행' 성불의 세 단계를 차례로 담은 글입니다.

먼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공부하며 수양하면서도 세상을 구제하심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초지보살 시절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다가, 그분들의 영험하신 보살행에 감동하시고, 나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밝게 살펴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자, 순식간에 8지보살의 단계로 초월하셨고 몸에서는 천 개의 손이 나왔는데, 각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달려서 '천수 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눈과 두 손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천수경' 또는 '천수천안 대다라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 '42수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이 담겨있습니다. 42개의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서원한 진언이 '42수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줄탁동시가 효과적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서 어미닭을 보고 "엄마! 나 나갈께요."하고 알의 안쪽을 톡톡치면, 어미닭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의 껍질을 콕콕하고 쪼아주어야 예쁜 병아리가 쉽게 세상에 나옵니다. 어미가 성급하게 쪼으면 부화될 준비가 덜된 병아리가 다치기 쉽고, 너무 느리면 알 안에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톡톡 · 콕콕하고 쪼아야 새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깨우치고자 하면, 부처님보살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눈으로 살피시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성불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중생을 관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살행을 할 때, 언제 어디든 찾아가 구제한다고 해서 자유자재한 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읽고 성불해서 피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 경전의 글은 모두 관세음보살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 세 개의 경문이 어미닭이 되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세 경문 앞에 예불경문을 실은 이유는, 이 세 경문의 영험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있다가 이 세 경전을 음송(소리내서 읽음)하는 영역에 잘못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신 또는 생명체가 세 경문의 힘에 눌려서 당황하고, 또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을 만들어 새로운 악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경문을 독송하기 전에 예불경문을 먼저 독송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그림을 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오색금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남긴 이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구해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송이 연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천수경'과 '42수 진언'을 보면, 과연 부처님의 참 진리는 만고에 빛나는 생명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신 '천수경'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께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책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 열 번을 독송했다면 둘이 하면 스무 번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을 살다가, 모두가 염원하는 극락정토로 가서 사시기를 바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 송원 설정

대유학당 | 설정스님 | 값 10,000원 |
192쪽 | 가로 9.5㎝ × 세로 15.5㎝

주문처 02)2249-5630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